

‘지역소멸 대응’ 담양 대덕에 지역활력타운 들어선다

국토부 공모사업 최종 선정 ... 26만㎡ 규모 · 1267억 투입

500세대 주거단지·농촌유학시설 등 다양한 기반 시설 조성

담양에 1000억원대 사업비가 투입되는 ‘지역활력타운’이 들어선다.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청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담양군은 지난 2일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하는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에 담양 대덕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와 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문화·복지·일자리 등이 복합 지원되는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협력한다.

사업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이주민의 지속 가능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돌봄·일자리·여가 등 필수 생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담양군에서 대덕면 매산리 544번지 일원에 추진하는 담양 대덕 매산지구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은 26만㎡ 규모로 조성되는 대단지 민관협력사업으로 국비 97억 원, 지방비 30억 원, 민자 1140억 원 등 총사업비 1267억 원이 투입된다.

귀농 또는 귀촌하는 은퇴자를 주요 대상으로 50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과 예술인특화단지, 농촌유학시설, 커뮤니티, 체육시설 등 다양한 기반 시설이 단지 내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커뮤니티시설에는 아동과 노인복지시설, 주민 동아리실, 공동식당

이 포함돼 있어 주민편의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이며, 생활기반 시설을 전면 개방해 전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지역은 광주와 20분 거리로 의료, 금융, 대형마트 등 기존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두루 갖추고 있어 향후 삶과 여유가 필요한 장년층의 이전과 정착을 유도하며 친환경 전원마을의 대표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은 이번 사업 선정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전남도, 국토교통부 평가 등 3차례 평가를 거쳤으며, 최종 평가에서 이병노 군수가 직접 발표에 나서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최종 선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대덕 매산 지역활력타운이 담양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균형발전, 앞으로 조성될 대규모 투자사업의 일자리 연계형 생활인구 정착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매력적인 명품단지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양=조승재 기자

나주 빛가람호수공원 오는 7일 개막

7~28일 매주 수요일 총 4회...아마추어 버스커 수시 모집

나주혁신도시에서 매주 수요일 밤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물들일 길거리 공연(버스킹)이 펼쳐진다.

나주 빛가람동 주민자치회에 따르면 주민제안 공모사업으로 마련한 버스킹이 ‘신이나주~! 빛가람 버스킹’이라는 테마로 6월 한달간 빛가람호수공원 야외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오는 7일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28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총 4회 시민들을 맞이한다.

개막공연 날엔 ‘색소폰&트롯 이수열’, ‘빛가람 통기타 전문버스커 유우’, ‘이승호 대금·한결후 해금·소리꾼 이유진의 국악 플라

보’, ‘팝페라 김아람’, ‘구수한 전라도사투리 트롯 청년농부 농수로’, ‘jibc 히든싱어 이문세편 안웅기’ 등이 공연한다.

빛가람 버스킹 사업추진단은 버스킹에 함께 할 아마추어 버스커를 수시 모집한다. 노래·국악·성악·팝페라·댄스·퍼포먼스 등 장르에 상관없이 함께 놀고 즐기는 축제의 장을 만들어 줄 버스커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빛가람 버스킹’ 참여 신청과 관련 문의는 빛가람동 주민자치회 (061-333-3632) 또는 ‘빛가람 버스킹 사업’ 집행위 원장 (010-2634-8411)에게 하면 된다.

【나주=서철훈 기자

함평, 고흥사랑기부제 답례품 확대

주택화재 안전꾸러미·별초대행 등 2종 추가

함평군이 기부자 수요를 반영해 고흥사랑기부제 답례품 별초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품목을 확대했다.

4월 함평군에 따르면 고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별초대행 서비스, 주택화재 안전꾸러미 등 2개 품목을 추가 선정했다.

별초대행은 함평군 산림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기부시 생성된 포인트로 할인권을 받아 별초대행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다.

함평에 산소가 있지만 직접 별초가 어려운 출향 향우들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줘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화재 안전 꾸러미는 함평소방

서에서 제안한 것으로, 소방시설 설치와 소방안전 교육을 결합된 서비스 품목이다. 기부자가 함평지역 주소지를 배송지로 선택하면 함평소방서 직원이 해당 주택을 방문해 소화기 등 소방 용품을 설치하고 안전교육도 제공한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답례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군은 현재 고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43개 품목 80종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부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답례품은 함평사랑상품권(29%), 함평전지한우(13%), 잡곡세트(10%) 순으로 집계됐다. 【함평=김용희 기자

순천 ‘십대의 좋은 습관 만들기 프로젝트’ 특강

오는 9일 순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명사 초청 강의

순천시는 오는 9일 오후 1시 순천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십대의 좋은 습관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명사초청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게으른 십대를 위한 작은 습관의 힘》의 저자이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장근영 심리학 박사를 초청하여, 좋은 습관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향상시키는 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습관이 가진 힘에 대한 이야기를 참가자들과 함께 나눌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부모, 지도자, 순천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5일까지 순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누리집에서 교육연수 ‘십대의 좋은 습관 만들기 프로젝트’로 신청하거나 QR코드 스캔을 통해 가능하다. 특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061-749-4234)로 문의하면 된다.

청소년과 함께 성장하는 부모특강을 통하여 특별한 사람들이 아닌, 누구나 좋은 습관을 통해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순천=조준희 기자

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 추진위 11명 구성

올해 축제 10월 7일부터 9일까지 개최



광양시는 광양전통숯불구이 축제 추진위원회 11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축제를 오는 10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개최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강문섭(광양기업) 위원장의 주재로 지난 5월 31일 열린 회의에서는 숯불구이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명예위원으로 신영식 전 추진위원장에게 추천됐으며, 제19회 광양숯불구이축제 실무협의회로 광양상공인회가 선정됐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 추진위원회는 문화예술, 소상공인, 청년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 18명으로 구성해 앞으로 2년간 축제를 주관한다.

강문섭 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 추진위원장은 “숯불구이축제가 성공

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봉사의 정신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축제를 오는 10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개최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종호 광양읍장은 “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 추진위원으로 위촉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가 시 대표 축제로서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서는 위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올해 축제를 통해 광양을 지역경제는 물론 원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광양=조준희 기자

광양 ‘다시 찾는 감동 관광도시’ 실현 적극 추진

연계 시티투어·음식·숙박 할인 등 4개 분야 58개 사업 지속 추진

광양시가 인근 도시 박람회 방문객 견인을 위한 여접시책 발굴과 체계적인 관광수용태세로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전 부서의 전략적 협업으로 광양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시 찾는 감동 관광도시, 광양’을 적극 실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홍보마케팅 강화, 볼거리 및 서비스 지원, 음식·숙박·교통, 관광시설 개선, 유관기관 연계 활동 지원 등 4개 분야 총 58개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이 중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관광객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2개 분야, 11개 사업을 선정해 역점 추진한다. 눈에 띄는 시책으로는 연계 광양시티투어, 전통시장 특가 판매, 먹거리타운 스탬프투어 및 할인 이벤트, 백운산자연휴양림 이용료 할인

등이다. 광양시는 오는 6일까지 매일 오후 2시 30분, 정원박람회장에서 떠나는 광양시티투어를 운영하고 박람회 입장권 소지자에게 지역 내 유료 관광지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새롭게 떠오르는 료컬여행에 부응해 광양요양장, 중마시장 등을 중심으로 키즈카페, 해누리플레이마켓, 동행세일 문화장터, 미식여행 등도 적극 추진된다. 광양불고기특화거리, 망덕포구먹거리타운 등의 스탬프투어, 가격합인 이벤트 등을 7월까지 실시하고 광양시관광협의회와 협업체 캠페인을 전개하고 친환경 기념품도 지급한다.

웰니스 공간으로 부상하고 있는 백운산자연휴양림에서는 박람회 입장권 소지자에게 목재문화체험장, 치유터, 숲 등의 이용요금을 50% 할인해

주는 이벤트를 10월까지 운영한다. 그 밖에도 관광객 유치에 따른 각종 홍보마케팅, 관광객 유치에 따른 여행사 인센티브 등 대형박람회와 연계한 다채로운 시책과 관광수용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규영 관광과장은 “인근 지자체 대형박람회는 다양한 내·외국인 관광객을 견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손에 잡히는 다각적인 연계 시책으로 박람회 방문객이 광양에 자연스럽게 흡수될 수 있도록 전 부서가 협력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관광수용태세 대비 전담팀을 중심으로 실무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추진상황을 공유하는 등 인근 지자체 박람회 특수 관광객 흡수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광양=조준희 기자

완도 수산물 ‘불모지’ 라오스 시장 공략 잔걸음

라오스 비엔티안 수산물 판촉전 행사 열어



완도군이 한국 수산물 불모지인 라오스 시장을 집중 공략한다.

완도군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라오스 수도인 비엔티안에서 (사)남도농수산식품수출협회 소속

수출 업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완도 수산물 판촉 행사를 가졌다.

이번 판촉전은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다. 비엔티안 소재 폭폭 메가마트에서 진행된다.

해남,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294명 배정... 전남 최다

해남군이 올 하반기 300여 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아 농촌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남군은 법무부 배정 심사협의회를 통해 올 하반기 전남에서 가장 많은 294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았다고 2일 밝혔다. 전남도에는 총 2335명의 농업분야 계절근로자가 배정됐다. 이는 지난해 입국한 계절근로자 141명의 두배 넘는 인원으로, 심화되고 있는 농촌의 일손부족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남군에는 올 상반기에도 총 222

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입국하여 농가에 배치됐으며,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친척을 초청하는 계절근로자 유치 프로그램도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해남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는 업무협약 등을 통해 대상 국가와 충분히 사전협의해 근로자 선발은 물론 입국 후 사후 관리까지 세심한 관리체계를 갖추어온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군은 수시로 운영실태를 점검해 농가와 근로자간 소통을 강화하는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올해 입국자 중 12명은 지난해 일

했던 근로자가 재입국해 기존 농가에 배치될 정도로 농가의 신뢰관계 구축에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결혼이민자들의 가족·친척이 입국하는 경우 안정적 정착이 유리하다는 점에 착안해 초청 프로그램을 운영, 현재까지 50명이 입국하는 등 적합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도 적극 발굴하고 있다.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해남군은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현행 최대 5개월에서 10개월까지 연장할 줄 것을 건의, 최대 8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해남=김동주 기자

곡성 섬진강기차마을서

‘곡·성·상·회 찾기’ 이벤트

곡성군은 섬진강기차마을에서 오는 17일까지 주말·공휴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곡·성·상·회 찾기’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게임은 13세 이하 어린이들만 참여할 수 있다. 게임 미션을 완수한 모든 어린이에게는 자차민 소정의 상품도 지급된다.

이와 함께 미술, 비눗방울 등 풍성한 공연도 함께 펼쳐진다. 공연은 주말과 공휴일 오후 1시와 3시에 중앙광장 피크닉존에서 즐긴다.

상반기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기차마을 4곳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지난 18일 개장한 ‘기차마을 플랫폼’이다. 1층은 매표소와 대합실, 2층은 시계탑과 전망대, 바깥으로는 대규모 광장을 갖춘 공간으로 섬진강기차마을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장미 속으로 동전을 넣으면 사랑이 이뤄지고, 가족과의 행복을 이뤄준다는 ‘사랑의 장미동전’ 코너도 마련돼 있다. ‘중앙광장 피크닉존’은 드넓은 그늘막과 인조잔디가 갖춰져 한적한 휴식을 즐기려는 관광객들의 인기 장소다. 【곡성=황상연 기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순천시, 2차 신청 접수

순천시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의 2차 신청을 오는 15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은 문화·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 지역 여성농어업인에게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1인당 연 20만 원의 행복바우처 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초 1차 신청을 받아 6,739명의 대상자를 선정했다.

지원대상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남 도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75세 이하(1948. 1. 1. ~ 2003. 12. 31. 출생)의 여성농어업인이다.

단, 사업자 등록 및 전업직 직업을 가진 자, 농어업인의 자녀로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자, 사업시행 전전년도 농어업 이외 소득이 3천7백만 원 이상인 자는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여성농어업인은 1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고, 대상자격 검증을 통해 최종 확정된 인원에게 하반기 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올해 초에 신청하지 못한 여성농어업인이 있다면 2차 신청기간에 꼭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